

재태한인의 특성과 태국에 대한 인식

김 홍 구*

I. 연구 필요성

재외한인의 이주역사는 1863년 연해주로 처음 이주한 해로부터 150년 가까이 된다. 하지만 세계 150여개국 600만명이 넘는 디아스포라(diaspora)를 보유한 한국의 경우, 그 동안 시급한 문제에 가리워진 채 잊혀지고 있었던 이들의 의미와 네트워크가 지니는 전략적 가치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이 일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전형권 2005: 166).

1997년 한국이 별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해 재외동포재단 업무를 신설한 이래 최근까지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세계 재외동포에 대한 접근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이들의 관심 지역은 미국, 일본, 중국, 구 소련, 남미 등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¹⁾

* 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교수, hongkoo@bufs.ac.kr. 이 논문은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2013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작성을 위해 설문조사를 도와 주신 주태한국대사관과 재태국한인회 등 모든 관계기관 여러분, 통계처리를 도와주신 IBK 기업은행 마케팅 전략부 시장분석팀의 박성화 박사님, 까셋삿 대학교 김동완 군, 건설적인 제안과 비평을 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런 도움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필자 탓이다.

1) 이들 지역 연구업적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들은 재일한인 한경구(2001), 재미한인 Hurh (1998), 재캐나다 한인 윤인진(2001), 재중한인 한상복·권태환(1993); 김강일·허명철(2001), 중앙아시아 한인 이광규 (2000), 중남미한인 박채순(2011)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업적으로는 1996년 통일부에서 출판한 10권에 달하는 『세계의 한민족』시리즈다. 이 책에서는 중국, 미국과 캐나다, 일본, 독립국가연합,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은 한국과 교역, 해외투자, 건설수주에서 2위권에 속할 정도로 경제적 긴밀도가 높다. 특히 한국과 태국 관계의 중요성과 심화현상은 최근 들어 잘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0년 1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무역량이 증가해 2011년에는 139억 달러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 태국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저조했으나, 2010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서서 2011년 누계, 24억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한국인 지분 10% 이상의 태국 내 우리 기업 수는 500여 개에 달하며, 약 7만여 명의 태국인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외교 분야 및 지역공동체 측면에서 살펴보면, 태국은 한국의 전통적 우방국으로 한반도 평화, 북핵 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항상 우리 정부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왔다. 또한 2012년 11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양국 관계는 21세기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건설과 구상이라는 맥락에서 하나의 지역단위로서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 태국은 동남아 한류의 거점으로서 태국인들은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음반 및 게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민간차원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한국문화 및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등 한류가 확산일로에 있다. 양국 상호 관광객 수는 1년에 130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사회·문화와 관광분야는 양국 관계에서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과 태국 관계가 심화된 데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세계화 전략과 경제성장에 따른 외교 및 경제관계 확대라는

중남미, 유럽, 아시아와 태평양, 중동과 아프리카 등의 재외한인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요인도 있지만, 일찍이 태국을 품고, 해외로 이주한 한인들의 이주역사가 이러한 관계를 심화시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재외동포 현황 2013)에 따르면 재태한인의 인구수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000명이다. 거주 자격별로 살펴보면 시민권자(47명)와 영주권자(71명)의 수는 적고 대다수는 일반체류자(14, 016명)와 유학생(966명)들이다.²⁾ 해외 거주 한인을 교민과 체류자로 분리하는 경우 사실상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한인 중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교민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태국의 경우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영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태국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한국과 50년 이상의 수교역사를 갖는 3개국 중 하나이며(필리핀 1949년, 태국 1958년, 말레이시아 1960년), 한인사회의 규모 면에서 필리핀(88,102명), 베트남(86,000명), 인도네시아(40,284명)에 이어 4번째(20,000명)로 규모가 큰 국가다(2013년 기준). 1970년대까지만 해도 태국은 동남아에서 교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한인들이 뿌리를 내린 안정도 측면에서는 가장 앞 선 국가이기도 했다.

한태관계 심화와 재태한인들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태한인에 대한 연구는 개설적 소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표적인 연구업적으로 3편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이문웅은 「동남아 한국 교민 연구자료집」에서 동남아 한국교민을 비교했으며 그 일부로 태국교민을 다루고 있다(이문웅 1987: 26-31). 이 연구는 자료모음집으

2)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여러 다른 용어-동포, 교포, 교민 등-로 표현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재외한인, 재태한인 등의 용어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재태한인은 교민(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자, 또는 이들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장기거주 하는 자)과 일반 체류자로 나눌 수 있는 데 이를 고려하여 교민이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포, 교포라는 용어도 일부 사용하게 될 것이다.

로 교민과 체류자들의 직업분포와 교민조직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 한경구 「세계의 한민족-아시아태평양」 역시 재동남아 한인의 일부로 재태한인을 다루고 있는데 이주의 역사, 지역별 분포 및 거주 현황, 교민사회의 사회 조직 및 단체, 가족 생활, 사회문제, 교육, 종교, 현지사회에의 진출 및 동화, 한인사회의 과제 등을 개설적으로 다루고 있다(한경구 1996: 87-99). 셋째, 김영애 “1960-70년대 태국사회 속의 한국인”은 193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인 교포 1세대부터 3세대를 중심으로 태국사회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했으며, 어떻게 동화되면서 활동했는가를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국태국학회 2008: 251-296).

이 같이 재태한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만한 본격적인 연구업적은 극히 미미하다고 하다고 볼 수 있다.

II. 연구 목적과 방법

이 연구는 재태한인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연령, 성별 결혼여부, 가족구성 등), 사회·경제적 특성(교육수준, 직업분포, 소득, 종교 등), 언어상황과 민족정체성의 유지 정도, 한인들의 태국에 대한 인식도 등을 현지 설문조사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재태 한인의 특성과 태국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외한인연구는 본질적으로 종합적이고 다학문적인 성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진행된 재외한인연구의 연구자들을 살펴보면 인류학, 역사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언어학, 언론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 출신이다. 또 재외한인연구는 각 나라와 지역에 사는 한인에 대해 연구하기 때문에 현지연구의 특성을 갖는다. 재외한인의 생

활과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주국과 현지사회의 지리, 정치경제, 사회문화, 인종 및 민족관계에 대한 현장적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윤인진 2005: 29).

종합적, 다학문적, 현지연구적 특성들로 인해 재외한인연구를 위한 연구방법론은 특정연구방법에 편중하기 보다는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자의 학문분야인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연구 방법에는 서베이 조사, 실험조사, 면접, 관찰, 현지연구, 포커스 그룹, 민속방법론, 생애사 연구 등이 있다(윤인진 2005: 31). 이 중 이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연구방법은 현지방문을 통한 서베이 조사이다. 정량적 연구로서의 서베이 조사는 인구센서스와 같이 다른 조사기관에서 제공되는 2차자료를 이용하거나,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연구자가 직접조사하는 경우가 있을 터이지만 태국의 인구센서스가 빈약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자는 직접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했다.

이 연구에 사용될 설문조사는 방콕 거주 한인 458명의 표본을 갖고 수행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허용오차는 $\pm 4.6 p$ 이다. 조사대상은 편의표본추출법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다. 조사데이터는 사회과학통계패키지인 SPSS 12.0을 이용해 코딩과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기초통계분석표와 성별, 연령별, 소득별 교차표를 만들어 재태한인들의 특성과 태국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표집틀이 될 수 있는 한인들의 주소록이나 전화번호부가 없는 상황에서 자료수집방법으로 확률표집법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대안으로 한인들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콕의 대형 교회, 사원, 주태 한국대사관, 주태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쓱쿵 12

한인상가 한국 음식점, 여행사, 한인 체육대회, 한인 국제학교와 토요학교, 재태 한인회와 한국문화원 주최 문화강좌, 재태한인회 월별 모임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방문 후 조사 했다.

이 설문조사는 기본적으로 비확률표집이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전체 한인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조사는 탐색적인 연구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 최대 규모의 설문조사인 만큼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설명을 시도하고자 하는 한정된 목적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연구는 재태한인을 사례연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재태한인의 이주 및 정착경험을 다른 지역의 재외한인들과 비교한다든가, 기존의 이론적 시각에서 조명하려는 목적을 갖는 것은 아니다.

Ⅲ. 재태한인의 이주와 정착³⁾

재태 한인사회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제 1세대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또는 군속으로 징용되어 태국 혹은 동남아 지역에 진출, 정착하였거나, 일제시대 중국 등에서 거주하다 종전 후 태국에 이주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1세대 한인들은 1964년 ‘야자수회’를 조직했고 이 조직은 ‘재태국 대한민국 교민회’(초대 교민회장 이경손)를 거쳐 현재의 사단법인 재태국한인회(The Korean Association In Thailand)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모두가

3) 이하 내용 중 다수의 역사적 사실들은 재태국한인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태국한인 60년사(1945-2008)”자료집(이 자료집은 CD 형태로 만들어져 있음. 재태국한인회 b. 2008)과 한인회에서 발간하는 한인회보『한인뉴스』 2013년 4월호(vol. 3)부터 10월호(vol. 10)를 참조했다.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했을 때 기록을 보면 태국에 거주하는 교민은 모두 87명이었다(남성 51명, 여성 36명).

제 2세대는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에 갔다가 팟타야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부두 하역, 건설업, 용역업 등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세대들이다. 또 일부는 중동 건설 붐과 함께 중동으로 태국 인력 송출 등을 하면서 정착한 인사들로 주로 무역, 여행업, 요식업 등에 종사했다.

제 3세대는 1980년대 후반 이래 한국의 해외여행 개방에 따라 태국에 대한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산업관련 진출한 교민들과 한국 투자 진출 증가 등 한·태 경제협력관계 증진에 따른 상사지사원 및 투자업체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재태한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 태국 투자는 1970년대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1970년 문구류 업체인 파이로트 만년필 회사(THE PILOT PEN CO.,(THAILAND)LTD.)가 최초 투자회사이다. 파이로트에 이어 경운기 제조전문인 대동공업이 들어오고, 복명광업이 잇달아 진출했으며 1979년에 전력 사용 계측기 생산을 위해 금성산전 (현재의 LG 산전)이 투자하게 되었다.

한국 기업의 본격적인 태국 투자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이다. 플라자 합의 결과 일본의 엔화가치 폭등을 야기시켰으며 한국에서도 생산비용의 상승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7년 민주화와 함께 노동 운동이 활발해지자 신발, 완구, 섬유 등의 수출형 노동 집약적 업종들이 공장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대거 태국과 동남아로 진출하게 되었다.

1987년 스피커 업체인 삼미 사운드가 태국 진출을 결정했으며 신발업체인 화승 산업도 1988년도에 태국에 진출했다. 90년대 초까지

태국에서 가장 후생 복지가 좋았던 한국의 초기 무선 전화기 회사인 맥슨 전자도 1988년 태국으로 진출했다.

1970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교민과 체류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 323명(교민 228명/체류자 95명), 1975년 497명(310명/187명), 1980년 681명(424명/257명), 1985년 632명(427명/205명)이다. 이 당시까지 태국의 교민 수는 체류자의 수보다 많았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는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태국 교민들은 일제하에 끌려 간 교민들이 전 후 귀국을 못한 채 현지에서 정착한 사례가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80년 태국 다음으로 교민의 수가 많았던 싱가포르의 경우 교민 수 342명, 일반체류자 수는 467명이었으며, 인도네시아의 교민 수는 40명이었지만 일반체류자 수는 1,227명이었다(이문웅 1987: 3-6).

1986년 대한민국 외교부 재외현황 자료에 의하면 태국 교민수는 449명(남 288, 여 161명), 체류자의 수는 286명(남 160명, 여 126명)이다. 교민들의 직업분포를 보면, 주부 92명(20.5%), 학생 66명(14.7%)을 제외하고 상업 80명(17.8%)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비스업 48명(10.7%), 사무직 종사자 43명(9.6%) 순이다. 체류자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주부 69명(24.1%), 민간상사주채원 38명(13.3%), 유학생 27명(9.4%), 종교인 22명(7.7%), 공무원과 상업이 각각 15명(5.2%) 순이다.

1988년은 태국에 한국 기업체의 투자가 홍수를 이룬 해이다. 따라서 투자회사의 증가와 함께 교민들의 수도 비례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 기업의 대 태국 투자는 1988-1991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 새로운 투자대상국이 등장하면서 증가세가 둔화하고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투자가 저조했지만 2010년 이후 회복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태국 직접투자는 누적액 24.4억불이

다. 태국 내 우리기업 수(한국인 지분 10% 이상)는 502개이며, 2000년 이후 전자, 자동차부품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다(2009년 조사기준).

삼성전자(1989년), LG전자(1997년) 및 200여개 전자부품 업체가 진출하였으며, 풍산(2000년), POSCO(2007년), 유니온스틸(2013년), 동부제철(2013년) 등 철강관련 기업들도 진출이 활발하다. 최근에는 CJ, GS의 홈쇼핑 개국,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1호점 출시 등 유통·서비스 분야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1997년 재태한인의 수는 7,901명으로 1986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3년 에는 15,100명에 달했다. 2003년 대한민국 외교부 재외현황 자료에 의하면 태국 교민수는 15,100명(남 10,100명, 여 5,000명)이고, 2005년 교민수는 19,500명(남 12,470명, 여 7,030명)이다.

1세대에서 3세대 태국 한인 역사까지, 한인들은 태국의 경제영역 안에서 매우 뚜렷한 성과를 남겼으며, 재태국한인회의 활동은 태국에서 한국인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인회 조직을 살펴보면, 1968년 12월에 창립된 재태국한인회(Korean Association in Thailand)를 중심으로 춘부리 지회(팻타야 포함, 1991년), 푸껫 한인회(2001년), 치앙마이 한인회(2001년), 치앙라이 한인회(2013년) 등의 조직이 있다.

직능단체는 한태상공회의소, 종교단체는 방콕살롬교회, 방콕한인연합교회, 천주교한인교회, 한국한인장로교회, 팻타야 한인교회,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등이 있다. 언론사는 교민광장, 교민잡지, 한아시아닷컴 등이 있으며, 교육단체는 방콕한국국제학교, 방콕한인토요학교, 푸껫 한글학교, 치앙마이 한글학교, 춘부리 에덴한글학교 등이 있다.

IV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1. 인구·지리적 특성

2010년 태국 통계국(National Statistical Office)자료에 따르면, 재태한인 인구는 총 14,569명(남 8,537, 여 6,032)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다. 한인은 태국 전체인구수(65,981,659명)의 극소수 이긴 해도, 세계 13위, 아시아 8위, 아시아 계 중 중국, 인도 및 동남아 국가를 제외하고는 일본(80,957명) 다음의 순위다. 이 자료는 연령이나 직업에 관한 세부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ailand 2010: 17-18).

직업별 인구 수에 관한 정보는 2011년 태국 노동국(Department of Employment)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워크퍼밋을 받은 한인 인구는 총 2,435명이며 이 중 고위관료와 관리직 1,715명, 전문직 473명, 기술직 114명, 판매서비스직 56명, 사무직 32명으로 분류하고 있다(Department of Employment, Thailand 2011: 127-128).

재태한인의 인구수에 대한 또 다른 정보는 대한민국 외교부 재외 현황 자료(격년 발행)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0년 인구수는 17,500명이며,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20,000명이다(남성 11,343명, 여성 8,657명). 지역별로 보면 방콕 14,900명, 치앙마이 2,000명, 푸껫 1,800명, 춘부리와 라영 등(한국 공단 밀집지역)에 1,3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거주 자격별로 살펴보면 시민권자 47명, 영주권자 71명이며 대다수는 일반체류자(14,016명)와 유학생(966명)들이다. 이 자료에는 나이나 직업 등의 정보는 없다. 직업에 관한 정보는 이전 자료인 2003년(15,100명)과 2005년(19,500명)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03년의 경우(1월 1일 기준) 자영업(15%), 회사원(14%), 관광업(15%), 전

문직(1%), 유학생(7%), 기타(48%)이며, 2005년의 경우 다른 비율은 동일하고 관광업이 20%로 증가했으며, 기타의 비율은 그만큼 줄어든 43%였다. 외교부 자료는 태국 이민국, 각 지역 한인회, 영사업무 현황, 재외국민등록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태국측 자료건, 한국측 자료건 재태한인들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기존자료는 빈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필자의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재태한인들의 인구·지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 나이, 법적신분, 이주시기, 가족구성, 결혼상태, 주거지역, 이주이유, 한국에서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표 1, 재태한인의 인구지리적 특성).

태국 통계청이나,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 모두 재태한인 남성의 수가 많았지만, 필자의 설문 대상자 458명은 남성 205명, 여성 251명, 무응답 1명으로 여성 비율(54.8%)이 남성(44.8%)보다 높았다. 연령 대별로 보면, 40대(38.9%)가 주축이 되고 있으며, 10대부터 40대까지가 전체의 77.8%를 차지해 한인인구의 연령은 젊은 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법적신분으로 보면 일반체류자(85.5%)와 학생 비율(11.2%)이 압도적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영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태국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곳에서 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에 상사나 지사에서 나왔다가 주저 앉는 경우가 많다. 장기간 거주한 경우에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해도 실익이 별로 없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재정적 이유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쉽지만은 않다.

이주 시기는, 2001년 이후가 69.6% 였으며 2001년 이후는 1991-2000 년과 비교해 무려 48.6%나 증가했다. 70% 에 이르는

한인들이 2001년 이후 이주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1980년대 중반 후 태국에 한국 기업체 투자러시와 관련된다. 투자회사의 증가와 함께 교민들의 수도 비례 증가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1986년 재태한인의 수는 735명(교민 449명, 체류자 286명)이며 10년 남짓만인 1997년에는 무려 10배 이상인 7,901명, 2003년 15,100명으로 점차 큰 폭으로 증가했던 사실과 응답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태한인들의 가족 구성은, 1세대 가족 비율(40.7%)이 가장 높았으며, 2세대의 비율(33.9%)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상태는, 기혼 비율(67.8%)이 미혼(30.7%)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기혼의 비율이 높고, 1, 2세대가 같이 사는 가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봐서 한인 가족은 비교적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태한인들은 방콕에 집중해 거주하고 있다. 2013년 대한민국 외교부 재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 방콕이 14,900명, 치앙마이 2,000명, 푸껫 1,800명, 촌부리와 라영 등(한국 공단 밀집지역)에 1,3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3가량이 방콕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방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조사에서는 썬쿰윗(30.5%), 방나(5.7%), 랏차다(2.7%), 프라랍 까오(3.6%), 방콕지역(51.4%), 기타지역(6.1%)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방콕지역이라는 응답은 방콕 내 거주지역을 상세히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역시 거주지역은 상세표시 한 지역을 포함해 팟타나깐, 프라랍 3, 방까빠 등이 포함되리라고 추측된다. 기타지역은 방콕 외의 지역을 의미하며, 설문조사 당시 방콕을 방문한 지방 거주자들이 응답한 것으로 추측된다.

재태한인들의 이민동기(중복응답 실시)를 살펴 보면, 보다 나은 삶의 질(10.6%) 보다는 해외파견근무(47.2%), 새로운 사업기회

(25.9%), 본인 및 자녀교육의 목적(20.4%) 으로 이민을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태한인들의 한국에서 직업분포는 학생(18.1%), 관리사무직(17.2%), 주부(16.6%), 자영업(9.3%), 판매서비스직(9.1%), 교육연구직(8.2%)순이었다.

<표 1> 재태한인의 인구·지리적 특성

특성	응답수	퍼센트
성별		
남	205	44.8
여	251	54.8
무응답	2	.4
연령		
10대	15	3.3
20대	73	16
30대	89	19.6
40대	177	38.9
50대	86	18.9
60대	11	2.4
60대 이상	4	.7
무응답	3	
법적신분		
영주권자	4	.9
시민	11	2.4
일반체류자	389	85.5
유학생	51	11.2
무응답	3	
이주시기		
1970년이전	1	.2
1971-1980	8	1.8
1981-1990	33	7.4
1991-2000	94	21.0
2000년이후	312	69.6
무응답	10	
가족구성		
독신	88	19.9
1세대	180	40.7
2세대	150	33.9

특성	응답수	퍼센트
기타	24	5.4
무응답	16	
결혼상태		
미혼	139	30.7
기혼	307	67.8
기타	6	1.3
무응답	6	
주거지역		
쭈콴윗	135	30.5
방나	25	5.7
랏차다	12	2.7
프라람까오	16	3.6
방콕지역	227	51.4
기타지역	27	6.1
무응답	16	
태국이주이유(중복응답)		
새로운사업기회	108	25.9
(한국의)안보문제와 정치불안정	4	1.0
(한국의)과열경쟁	10	2.4
본인 및 자녀교육	85	20.4
보다 높은 삶의 질	44	10.6
해외 (파견) 근무	197	47.2
한국직업		
육체노동	1	.2
기숙직	18	4.1
관리사무직	76	17.2
판매서비스직	40	9.1
공무원	22	5.0
주부	73	16.6
자영업	41	9.3
교육연구직	36	8.2
학생	80	18.1
무직	27	6.1
기타	26	5.9
무응답	18	
사례수(명)	458	

2. 사회·경제적 특성

재태한인들의 학력, 주 업종, 소득수준, 종교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특성을 알아보았다(표 2, 재태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재태한인들은 매우 높은 학력(대재이상 80.6%)을 소지하고 있으며, 자영업과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종사업종은 주부(21.3%), 판매서비스직(13.7%), 관리사무직(13.5%), 학생(13.5%), 자영업(11.5%), 교육연구직(8.2%)순이다. 주부와 학생을 제외하면 판매서비스직이 가장 높은 13.7%이며, 직업안정도가 다소 낮은 자영업과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25.2%가 된다. 표 1에서 한국에서 자영업과 판매서비스직을 합한 비율이 18.4%인 것을 감안하면 태국에 이주해 학력대비 직업안정도가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직종은 여행사, 식당, 골프장, 쇼핑센터 순으로 많았다(재태국한인회 a, 2008). 따라서 한인들의 주 업종은 한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인들의 월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중 이상이 73.8%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중하 이하(중하와 하)도 26.2%나 된다. 낮은 소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민들도 상당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경우 교민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응답은 학생층(13.5%)이 어떻게 응답했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한인들의 종교는 기독교(50.9%), 불교(16.4%), 카톨릭교(8.9%)순이다. 한인들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콕의 대형 교회 두 군데와 사원 한군데가 주요 설문 대상지였다는 것이 설문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표 2> 재태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특성	응답수	퍼센트
학력		
중졸이하	8	1.8
고졸	79	17.4
대재이상	365	80.6
무응답	6	
주업종		
육체노동	4	.9
기숙직	13	2.9
관리사무직	61	13.5
판매서비스직	62	13.7
공무원	20	4.4
주부	96	21.3
자영업	52	11.5
교육연구직	37	8.2
학생	61	13.5
무직	9	2.0
기타	36	8.0
무응답	7	
소득수준		
하	64	15.5
중하	44	10.7
중	209	50.6
중상	79	19.1
상	17	4.1
무응답	45	
종교		
기독교	243	53.9
카톨릭	40	8.9
불교	74	16.4
힌두교	1	.2
기타	93	20.6
무응답	7	
사례수(명)	458	

V. 언어와 정체성

1. 언어상황

이민생활 중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언어문제다. 한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는 국제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태국어에 익숙하지 못하다. 부모들은 영어든 태국어든 언어장벽 때문에 교사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의 과제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다. 이들은 한인 이민사회의 테두리에 갇히고 되는 경우가 많다.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 태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게 되는 데 기업에서는 주로 태국어 가능자를 찾는다. 대학 생활 중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도 태국어 통역 일이다.

필자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밝혀졌다. 재태한인들은 70% 이상이 영어(72.2%)와 태국어(70.4%)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어 구사능력은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귀하는 태국어를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에서 ‘유창하다’와 ‘매우 유창하다’의 비율이 13.3%이며 ‘조금 할 수 있다’와 ‘전혀 못한다’의 비율이 56.5% 였다.

<표 3> 태국어 구사능력

태국어 구사능력	응답수	퍼센트
매우유창	12	2.7
유창	48	10.6
보통이다	136	30.2
조금 할 수 있다	213	47.2
전혀 못한다	42	9.3
합	451	100.0
무응답	7	
총합	458	

성별로 보면 ‘매우 유창하다’와 ‘유창하다’의 비율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앞섰으며,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이상 연령층(40-60대이상)이 젊은 연령층(10-30대) 보다 약간 앞섰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소득별로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득 상위층(중상과 상) 평균 23.95%, 소득 하위층(하와 중하) 10.35%로 상위층의 태국어 구사능력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어를 하는 경우 읽고 쓸 수도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에서 ‘제한적으로 읽고 씀’ 47.7%, ‘이해하지만 읽고 쓰지 못함’ 45.7%, ‘완벽하게 읽고 씀’ 6.6%로 나타났다. 이 항목은 무응답층이 108명이나 됐지만 무응답층은 제한적으로 읽고 쓰거나, 이해하지만 읽고 쓰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

<표 4> 읽고 쓰기 능력

태국어 읽고 쓰는 능력	응답수	퍼센트
완벽히 읽고 씀	23	6.6
제한적으로 읽고 씀	167	47.7
이해하나 읽고 쓰지 못함	160	45.7
합	350	100.0
무응답	108	
총합	458	

성별로 보면, ‘이해하지만 읽고 쓰지 못하는 비율’은 여성(46.0%)이 남성(44.1%)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 내의 평균 비율(47.86%)이 중장년층(47.96%)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소득별로 보면, 소득 상위층 평균 비율(56.25%)이 소득 하위층(4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 상위층의 태국어 구사능력(23.95%)은 소득 하위층(10.35%)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이해하지만 읽고 쓰지 못하는’ 비율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 연령별, 소득별 설문결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 같이 태국어를 구사하면서도 읽고 쓰지 못하는 이유는 말로만 태국어를 배운다는 의미다. 태국어는 한국어와는 아주 상이하다. 태국어는 고립어이며 성조어이고 문자도 고유문자를 갖고 있다. 대부분 영어로 강의하는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한인 2세들의 경우 회화 위주의 태국어 공부를 한다. 학원에서는 영어와 국제 음성 기호(IPA: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로 태국어를 배우게 돼 문자를 모르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자를 모르고 말로만 태국어를 배우면 일정수준에 오른 후 더 이상 배움의 진전이 없게 된다.

재태한인들은 태국어를 배울 의사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국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 배울 의사가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에서 긍정률(‘많다’ 41.8%, ‘아주 많다’ 31.3%)이 73.1%나 된다. 소득별로 보면, 소득 하위층(긍정률 81.45%)이 상위층(64.6%)보다 배울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긍정률 74.8%)이 여성(긍정률 71.5%)보다 배울 의사가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긍정률 69.86%)이 중장년층(64.83%)보다 배울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2. 민족정체성

재외한인 현상은 전지구화(globalization)라는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초국가주의적(transnational)문화의 흐름이라는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초국가주의 현상의 중요한 함의 중 한 가지는 정체성에 관련 된 것이다.⁴⁾ 이 연구에서는 정체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민족공

4) 포르테스(Portes 1997)는 초국적 이주민(transmigrants)의 특성에 대한 언급에서 이주민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중적 언어를 구사하고, 두 국가에 두 곳의

동체에 대한 동일시 정도와 정서적, 행위적 애착도를 알아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질문항목을 제시해 보았다.

동일시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은 “나는 내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느낀다”, “나는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한국인을 좋아한다” 등 3개 항목이었다.

민족 공동체의 가치와 관습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를 측정하는 애착도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은 “나는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한다”, “가족 (본인)의 결혼상대자는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전통문화와 관습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십니까?” 등 4개 항목이었다.

“나는 내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느낀다” 에 대한 긍정률(‘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은 95.9%이다. 자신을 한인으로 자각(동일시)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한국인 자각

한국인 자각	응답수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2	.5
그렇지 않다	4	.9
보통이다	12	2.7
그렇다	147	33.1
매우 그렇다	279	62.8
합	444	100.0
무응답	13	
총합	458	

성별로 보면, 여성의 동일시 정도(긍정률 97.5%)가 남성(93.9%)보

거주지를 유지하고, 이 두 곳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초국적 이주민은 한 국가에 고정되어 있는 단일 정체성이 아닌 다중적이거나 가변적이며 혼종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의 동일시 정도(긍정율 98.06%)가 젊은 층(긍정율 93.93%)보다 높았으며, 소득별로 보면, 소득 하위층(긍정률 99.2%)이 소득 상위층(긍정율 95.45%)보다 한국인으로 동일시하는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성별, 연령별, 소득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나는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에 대한 긍정률은 84.5%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각하는 비율보다는 10% 이상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84.9%)의 긍정률이 남성 (83.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별로 보면, 소득 상위층 긍정률(82.95%)이 소득 하위층 (80.15%)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 긍정률(90.2%)이 젊은 층(88.76%)보다 높았다. 하지만 소득별,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나는 한국인을 좋아한다”에 대한 긍정률은 81.7%로 동일시 정도를 측정하는 3개 항목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성별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의 긍정률(84.1%)이 남성보다(78.9%)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보면, 소득 상위층(84.3%)과 하위층의 긍정률 (84.1%)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중장년층(85.7%)과 젊은 층(85.6%)의 긍정률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6> 한국인을 좋아한다

한국인을 좋아한다	응답수	퍼센트
그렇지 않다	8	1.8
보통이다	73	16.4
그렇다	199	44.8
매우 그렇다	164	36.9
합	444	100.0
무응답	14	
총합	458	

에착도를 알아보기 위한 첫번째 항목인 “나는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한다”에 대한 응답 긍정률은 66.5%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 긍정률(68.7%)이 여성(64.7%)보다 높았으며, 소득별로 보면, 소득 상위층 평균 긍정율(79.9%)이 소득 하위층(61.5%)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 긍정률(74%)이 젊은 층 긍정율(56.43%)보다 높았다. 하지만 소득별, 연령별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두번째로, “가족 (본인)의 결혼상대자는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 ‘가능하면 한국인’ 37.4%, ‘반드시 한국인’ 27.9%, ‘한국인 아니라도 상관없다’ 34.4% 였다. 65.3%가 한국인을 배우자로 선택하겠다는 응답을 하고 있으나 상관없다는 응답도 34.4%나 되었다.

성별로 보면, ‘반드시 한국인’과 ‘가능하면 한국인’의 비율은 여성 (67.6%)이 남성 (62.5%)보다 높았다. 소득별로 보면, 소득 상위층 (66.2%)의 비율이 소득 하위층(60.1%)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72.13%)이 젊은 층(64.06%)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 소득별, 연령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세번째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관습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긍정률은 77.3% 였다. 위의 정치제도와 법을 지키는 것보다(66.5%)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별로 보면, 소득 상위층(긍정률 81.5%)이 소득 하위층(73.1%)보다 성별로 보면, 여성(77.7%)이 남성(76.9%)보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81.5%)이 젊은 층(71.7%)보다 ‘전통문화와 관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네번째로,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십니까?”에 대한 응답에서 ‘한국식과 태국식을 반반 정도 먹는다’ 40.1%, ‘한국음식을 더 먹는다’ 37.0%, ‘태국음식을 더 먹는다’ 16.7%였다.

소득별로 보면, ‘한국음식을 더 먹는다’는 응답은 소득 상위층의 비율(54.4%)이 하위층(21.4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태국음식을 더 먹는다’는 응답은 소득 하위층(28.2%)에서 소득 상위층(9.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한국음식의 값이 태국음식 값보다 비싼 것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성별로 보면 ‘한국음식을 더 먹는다’는 응답은 여성(43.5%)이 남성(28.9%)보다 높았고, ‘태국음식을 더 먹는다’는 응답은 남성(21.4%)이 여성(12.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음식 선호도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한국음식을 더 먹는다’는 응답은 중장년층(40.6%)이 젊은 층(2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태국음식을 더 먹는다’는 응답은 젊은 층(27.1%)이 중장년층(7.53%)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한국음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 소득별, 연령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VI. 태국에 대한 인식도

재태한인들의 태국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는 일은 현지생활 적응 정도나, 주류사회의 기회구조 참여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인식도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나는 태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 “태국은 한국에게 우호적인 나라이다”, “태국은 우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나라이다”, “태국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다”, “나는 태국사람에게 호

감이 간다”, “태국 사람들은 우수한 국민성을 갖고 있다” 등의 질문 항목을 제시했다.

“나는 태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에 대한 긍정률(‘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비율)은 54.5%였으며, 통계상으로 연령과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젊은 층(긍정률 61.4%)이 중장년층(49.13%)보다 태국에 대해서 더 호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긍정률(63.6%)이 여성(47.2%)보다 월등히 높았다.

<표 7>태국에 대한 호감도

태국호감	응답수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4	.9
그렇지 않다	30	6.8
보통이다	168	37.8
그렇다	201	45.3
매우 그렇다	41	9.2
합	444	100.0
무응답	14	
총합	458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 상위층의 긍정률(65.7%)이 소득 하위층(61.95%)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태국은 한국에게 우호적인 나라이다”에 대한 긍정률은 60.7%였으며 통계상으로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장년층의 긍정률(63.5%)이 젊은 층(57.56%)보다 더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긍정률(67.4%)이 여성(55.3%)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 상위층(71.3%)이 소득 하위층(62.8%)보다 “태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성별, 연령별 차이는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태국은 우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나라이다”에 대한 긍정률은 50.5%였다. 통계상으로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장년층 긍정률(57.96%)이 젊은 층(4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긍정률(56.7%)이 여성(45.5%)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 상위층(64.5%)이 소득 하위층(50.6%)보다 “태국은 우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나라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성별, 소득수준별 차이는 통계상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태국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다”에 대한 긍정률은 29.9%였으며 부정률은 21%였다. 다른 항목의 경우 부정률이 대개 10%대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꽤 높은 수치이다.

성별 긍정률은 남성의 긍정률(34.7%)이 여성(25.9%)보다 높았다. 부정률은 남성 19.9%, 여성 12.1%였다. 소득별로 보면, 소득 하위층의 긍정률(34.2%)이 소득 상위층의 긍정률(27.05%)보다 높았다. 소득 상위층의 부정률은 19%, 소득 하위층의 부정률은 13.45%로 하위층이 상위층보다 “태국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의 긍정률(31.96%)이 젊은 층(29.66%)보다 높았으며, 젊은 층 부정률 (25.36%)이 중장년층 부정률 (18.66%)보다 높았다. 하지만 성별, 소득별, 연령별 차이는 통계상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나는 태국사람에게 호감이 간다”에 대한 긍정률은 38.5%였으며, 부정률은 12.8%였다. 성별, 소득별, 연령별로 모두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긍정률(48.5%)이 여성(30.5%)보다 높았으며, 부정률은 여성(15%)이 남성(10%)보다 높았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층 긍정률(46.1%)이 상위층(43.8%)보다 높았으며, 부정률은 소득 상위층(17.25%)이 소득 하위

층(10.95%)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젊은 층 긍정률(46.06%)이 중장년층(37.16%)보다 높고, 부정률은 중장년층(15.65%)이 젊은 층(11.2%)보다 높았다. 젊은층이 중장년층보다 “태국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표 8>태국인에 대한 호감도

태국인호감	응답수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11	2.5
그렇지 않다	46	10.3
보통이다	217	48.7
그렇다	146	32.7
매우 그렇다	26	5.8
합	446	100.0
무응답	12	
총합	458	

“태국 사람들은 우수한 국민성을 갖고 있다”에 대한 긍정률은 21.3%이며, 부정률은 33.6%이다. 모든 항목 중 부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통계학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젊은 층 긍정률(27.36%)이 중장년층(21.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률은 중장년층(38.1%)이 젊은 층(31.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 긍정률은 남성(48.5%)이 여성(30.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률은 여성(15%)이 남성(10%)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보면, 소득 하위층의 긍정률(25.8%)이 소득 상위층(17.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률은 소득 상위층(36.35%)이 소득 하위층(30.15%)보다 높게 나타나, 하위층이 상위층보다 “태국 사람들은 우수한 국민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성별, 소득별 차이는 통계상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VII. 결론 및 제언

태국에서 한국인의 정착은 1930년대 후반을 시작으로 전개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재태한인들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1980년대 말 한국 기업체의 투자러시가 이루어지면서 투자회사의 증가와 함께 1990년대 이후 한인들의 수도 비례해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현재 한인들 대부분은 2000년대 이후 이주해 온 사람들이며 교민들의 수는 극소수이며, 일반 체류자가 수적으로 훨씬 많다.

이 연구는 기존의 관련 인구센서스의 자료가 극히 불충분한 상태에서 필자가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해 재태한인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언어상황과 정체성, 태국에 대한 인식도 등을 잠정적으로 파악해 보았으며 그 중요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 보면, 재태한인들은 연령대별로 40대가 주축이 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젊은 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법적 신분으로 보면 일반체류자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이주시기를 살펴보면, 70%에 가까운 수가 2000년대 이후 이주해왔다. 가족 구성은 기혼의 비율이 높고, 1, 2세대가 같이 사는 가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봐서 비교적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민동기는 해외(파견)근무, 새로운 사업기회, 본인 및 자녀교육 순으로 높았다.

둘째,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 보면, 재태한인들은 매우 높은 학력(대재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며, 자영업과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한국에서 동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태국에 이주해 학력대비 직업안정도가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인들의 월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중하 이하가 26.2%나 됨으로써 소득격차가 나는 것으로도 파악

되고 있다. 한인들의 종교는 기독교, 불교, 카톨릭교 순으로 많았다.

셋째, 언어상황을 살펴 보면, 한인들은 70% 이상이 영어와 태국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태국어 구사능력은 그리 높지 않았다. 태국어가 ‘유창하다’와 ‘매우 유창하다’의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소득수준별로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났는데 소득 상위층이 소득 하위층보다 태국어 구사능력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어를 구사하지만 제한적이거나, 읽고 쓰지 못한다는 비율은 각각 47.7%와 45.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태국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 배울 의사는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많다’ 41.8%, ‘아주 많다’ 31.3%).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배울 의사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74.8%)이 여성(71.5%)보다 배울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족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족공동체에 대한 동일시 정도와 정서적, 행위적 애착도를 알아보았다. 재태한인들은 자신을 한인으로 동일시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각’ 긍정율(‘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은 95.9%에 달했다.

민족공동체에 대한 애착도를 알아볼 수 있었던 항목에서 “나는 한국인을 좋아한다”에 대한 긍정률은 81.7%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긍정률(84.1%)이 남성(78.9%)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치제도와 전통문화 관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긍정율이 66.5%와 77.3% 였다. 전자의 경우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68.7%)이 여성(64.7%)보다 긍정률이 높았다. 후자는 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득 상위층의 긍정률(81.5%)이 하위층(73.1%)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대자와 음식선호도를 살펴보면, 한국인을 배우자로 선택하겠다는 응답(‘가능하면 한국인’ 과 ‘반드시 한국인’)은 65.3%였지만 ‘상관없다’는 응답도 34.4%나 되었다. ‘한국음식을 더 먹는다’는 응

답은 37.0%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음식 선호도는 높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한국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민족 동일시나 애착도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 상위층이 하위층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률이 대체로 높았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섯째, 태국에 대한 인식의 긍정률은 민족정체성에 대한 동일시 정도나 정서적, 행위적 애착도에 대한 긍정률 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긍정률은 최저 21.3%에서 최고 60.7%였으며, 총 6개 문항 중 50% 이하의 긍정률을 보인 항목은 절반인 3개 항목이었다.

태국에 대한 호감도(54.5%)는 태국사람에 대한 호감도(38.5%)보다 높았다. 태국과 태국사람에 대한 긍정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젊은층이 중장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태국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소득 하위층이 상위층보다 높았다. “태국 사람들은 우수한 국민성을 갖고 있다”에 대한 긍정률은 21.3%로 전 항목 중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한 긍정률은 젊은층이 중장년층보다 높았다. 태국은 어떤 나라인가 관련 항목을 비교하면 “우호적인 나라” 60.7%,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나라” 50.5%, “배울 점이 많은 나라” 29.9% 순이었다. 이 중 “태국이 우호적이며 우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나라”에 대한 응답에서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장년층의 긍정률이 젊은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태국에 대한 인식도는 남성의 긍정률이 여성보다 뚜렷하게 높다는 점도 관찰할 수 있었다. 위 한민족으로서의 동일시나 애착도와 비교하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태국에 대한 개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설문조사를 통한 “재태한인의 특성과 태국에 대한 인식도”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맺기로 한다.

첫째, 설문조사결과 소득상위층(23.95%)은 하위층(10.35%)보다 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만 태국어를 배우겠다는 의지는 소득 상위층(64.6%)보다 소득 하위층(81.45%)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언어라는 것이 해외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필수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태한국대사관, 주태한국문화원, 재태한인회 등의 공공기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태국어 무료강좌 개설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소득수준 중 이상이 73.8%이지만 중하 이하도 26.2%나 된다. 이러한 소득격차는 한인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격차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정착지원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태한인들은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고(84.5%), 한국인을 좋아하지만(81.7%), 태국(54.5%)과 태국인(38.5%)에 대한 호감도는 이에 비해 훨씬 뒤 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인들은 민족 동일시와 애착도는 강하지만 태국에 대한 인식은 이에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한인들이 더 많이 태국 주류사회의 기회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태국 문화와 태국인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도 제안한다.

주제어: 재태한인, 인구 통계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언어상황, 민족정체성, 태국에 대한 인식도

〈 참고문헌 〉

- 김강일·허명철. 2001. 『중국조선족: 사회의 문화우세와 발전 전략』. 연길: 연변 인민 출판사.
- 김영애. 2008. “1960-70년대 태국 사회 속의 한국인.” 한국태국학회. 『한태관계의 어제와 오늘』. pp.251-296.
- 박채순. 2011. “중남미 한인 동포사회와 동포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한인디아스포라연구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예비조사 연구』(2011년 1월 31일).
- 윤인진. 2001. “토론토 지역 한인의 생활과 의식.” 『재외한인연구』 11호. pp. 5~56.
- 윤인진. 2004.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 윤인진. 2005. “코리아타운의 형성과정과 재미한인사회 연구방법.” 국사편찬위원회. 재외동포사총서 2. 『재외동포사회의 역사적 고찰과 연구방법론 모색』.
- 이광규. 2000. 『재외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문웅. 1987. 『동남아 한국교민 연구자료집』.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재태국한인회 a. 2008. 『태국한인주소록』.
- 재태국한인회 b. 2008. 『태국 한인60년 史(1945~2008)』.
- 재태국한인회 c. 2013. 『한인뉴스』 04/05/06/07/08/09/10.
- 전형권. 2005. “재외동포사회의 역사적 고찰과 연구방법론 모색.” 국사편찬위원회. 재외동포사총서 2. 『재외동포사회의 역사적 고찰과 연구방법론 모색』.
- 한경구. 1996. 『세계의 한민족-아시아태평양』. 서울: 통일원.
- 한경구. 2001. “민족분산과 이주의 역사와 현황: 일본.” 김인영 편. 『민

- 족통합의 새로운 개념과 전략(하):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민족통합」. 춘천: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pp.91~149.
- 한상복·권태환. 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Hurh, Won Moo.1998. *The Korean Americas*.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 Portes, Alejandro. 1997. "Immigration Theory for a New Century: Some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 Vol. 31, No.4: 799-825.
- Department of Employment , Thailand. 2011. *Year Book of Employment Statistics 2011*.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ailand. 2010. *The 201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 세계한상네트워크 사이트 <http://www.hansang.net>
-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okta.net>
- 외교부 홈페이지(재외동포 정책 및 현황) <http://www.mofa.go.kr>
- 재외동포재단 세계한상대회 홈페이지 <http://www.okf.or.kr/index.html>
- 재외동포재단 <http://www.okf.or.kr>

(2014.07.06투고, 2014.08.22심사, 2014.08.25게재확정)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s in Thailand and Their Perceptions on Thailand

KIM Hong Koo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research analyz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 - economic characteristics, language ability, national pride, perceptions of Thai people and Thailand of Koreans in Thailand.

This research was written based on findings from a sample of 458 respondents who were selected from the population of Bangkok,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 4.6 p at 95% confidence level.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August to October 2013, spanning over 90 days. Because of the limited nature of this survey, it may not be fully applicable to the entire Koreans in Thai society. Analyses included an overall frequencies analysis as well as chi-square analyses using variables such as gender, income and age.

I propose three suggestions from this research.

The first suggestion is the need to open free lecture for the lower income groups who do not possess a good Thai language ability. The higher income groups could speak Thai more fluently (23.95%) in contrast with the lower income groups(10.35%). However, the rate of positive perceptions for having a mind to learn(very much and much) was

higher for lower income groups(low, lower-middle, 81.45%) in contrast with the higher income groups(64.6%).

Language is the vital instrument to live a successful life abroad. So I suggest that Korean Embassy in Thailand or Korean Cultural Center in Thailand or the Korean Association in Thailand should open free lectures for the lower income groups who do not possess a good Thai language ability.

The second suggestion is the need to develop the program for reducing the income gap. Respondents above middle income groups comprised of 73.8% of the total sample population, and the lower income groups made up 26.2%. Economic disparity among the respondents can cause some social disharmony. In this regard, I suggest that Korea government develop the program to reduce the economic disparity or support for settlement for social harmony.

The third suggestion is the need to provide systematic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to better understand Thai culture and Thai people. 81.7% of the respondents strongly agreed or agreed to the statement “I like Korean?”, while 54.5% among the respondents expressed positivity(strongly agree, agree)towards the statement “I am favorable to Thailand.” While Koreans take pride in their own national pride overall, their perception of the Thai is lacking.

In this regard, I suggest that Korean government provide systematic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to better understand Thai culture and Thai people to raise the awareness.

Key Word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 - economic characteristics, language ability, national pride, perceptions of Thai people and Thailand of Koreans in Thailand.

〈부록 1〉 재태한인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김홍구 교수입니다. 재태한인들의 태국사회에 대한 인식 등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가 답변하신 내용은 오직 설문조사의 통계처리만을 위해 이용되며 설문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재태국한인회의 협조를 얻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귀하 본인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해당항목에 표시(✓)해주시거나, ()속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나이는? ()세

3. 귀하의 월 소득 수준(개인)은 얼마입니까?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4. 귀하가 종사하는 주업종은 무엇입니까?
① 육체노동 ② 기술직 ③ 관리, 사무직
④ 판매, 서비스직 ⑤ 농림수산업 ⑥ 공무원
⑦ 주부 ⑧ 자영업 ⑨ 교육연구직
⑩ 학생 ⑪ 무직 ⑫ 기타 ()

5.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6.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기독교 ② 가톨릭교 ③ 불교
④ 이슬람 ⑤ 힌두교 ⑥ 기타 ()

7.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재이상

8. 귀하의 주거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

9. 귀하의 법적신분은 무엇입니까?

- ① 영주권자 ② 시민권자 ③ 일반체류자 ④ 유학생

10. 본인(또는 부모님, 조상)의 최초 이주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1970년 이전 ② 1971-1980년 ③ 1981-1990년
④ 1991-2000년 ⑤ 2001년 이후

11. 가족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 ① 독신 ② 1세대 ③ 2세대 ④ 기타

12. 한국에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육체노동 ② 기술직 ③ 관리, 사무직
④ 판매, 서비스직 ⑤ 농림수산업 ⑥ 공무원
⑦ 주부 ⑧ 자영업 ⑨ 교육연구직

- ⑩ 학생 ⑪ 무직 ⑫ 기타 ()

13. 태국에 무슨 이유로 오셨습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새로운 사업기회 ② (한국의)안보문제와 정치불안정
③(한국의)과열경쟁 ④ 본인및 자녀교육
⑤ 보다 높은 삶의 질 ⑥ 해외(과전)근무

다음은 귀하의 현지생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생각 하시는대로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1. 귀하가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가 있으십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영어 ② 태국어 ③ 중국어 ④ 일본어 ⑤ 기타

2. 귀하는 태국어를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 ① 매우 유창하다 ② 유창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할 수 있다 ⑤ 전혀 못한다

3. 태국어를 하는 경우 읽고 쓸 수도 있습니까?(태국어 가능자만 답해주세요)

- ① 완벽히 읽고 쓸 수 있다 ② 제한적으로 읽고 쓸 수 있다
③ 이해는 하지만 읽고 쓰지는 못한다

4. 태국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 배울 의사가 있습니까?(태국어를 하지 못하는 분만 답해주세요)

- ① 아주 많다 ② 많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없다 ⑤ 전혀 없다

5. 올림픽 경기에서 한국과 태국팀이 경기하게 될 때 어느 팀을 응원하

시겠습니까?

- ① 전적으로 한국팀 ② 좀 더 한국팀 ③ 중립
- ④ 좀더 태국팀 ⑤ 전적으로 태국팀 ⑥ 상관없다

6. 가족(본인)의 결혼상대자는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한국인이어야 한다 ② 가능하다면 한국인이어야 한다
- ③ 한국인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7. 한국의 전통문화와 관습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십니까?

- ① 태국음식만 먹는다 ② 한국음식만 먹는다
- ③ 태국음식을 더 먹는다 ④ 한국음식을 더 먹는다
- ⑤ 한식-태국식을 반반 정도 먹는다

9. 가장 절친한 직장동료(친구)는 누구입니까?

- ① 한국인 ② 태국인 ③ 아시아인 ④ 서양인 ⑤ 기타

다음은 **태국과 태국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정답은 없으며, 생각하시는데로 표시(✓)해주시거나, ()속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태국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태국은 민주화된 나라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태국은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태국사람들은 우수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태국사람에게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태국은 한국에게 우호적인나라이다.	①	②	③	④	⑤
9	태국은 우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나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태국은 배울 점이 많은 나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태국의 대중문화(드라마, 영화, 음악 등)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의 태국의 대중문화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가능)	①영화 ② TV 드라마 ③ 음악 ④ 컴퓨터게임 ⑤기타()				
13	다음 중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이주노동, 탈북자, 관광, 마약, 국제 결혼, 경제협력, 한국인 기업, 불법송금, 유학생, 범죄, 비자, 성매매, FTA, 한인사회, 기타()				
14	태국제품은 품질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태국제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태국 현지 생활 및 한국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여
쭙고자 합니다. 정답은 없으며, 생각하시는데로 표시(✓)해주시거나, ()
)속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내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느 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한국인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한민국의 성취를 자랑스러 워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누군가가 한국을 비난한다면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나라의 국내뉴스를 일주일에 얼마나 보고계십니까?	()시간/주				
9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일주일에 얼 마나 보고계십니까?	()시간/주				
10	우리나라의 음악을 일주일에 얼마 나 듣고 계십니까?	()시간/주				
11	우리나라의 영화를 일주일에 얼마 나 보고계십니까?	()시간/주				
12	나는 한국인보다 태국현지인 친구 가 더 많다	①	②	③	④	⑤
13	태국 현지인들 중 친한 친구의 수 가 얼마나 됩니까?	없음 ② 1-2명 ③ 3-4명 ④ 5-6명 ⑤ 7명 이상				
14	태국 현지인들과 한국에 대해 얼마 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한 달 에 몇 번?)	없음 ② 1-2번 ③ 3-4번 ④ 5-6번 ⑤ 7번 이상				
15	태국 현지인들에게 한국문화(드라 마, 영화, 음악등)를 소개해준 적이 있습니까? (한달에 몇 번?)	없음 ② 1-2번 ③ 3-4번 ④ 5-6번 ⑤ 7번 이상				

**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각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교차 분석>

	태국어 배울 의사					총합
	아주 많다	많다	그저 그렇다	없다	전혀없다	
남	50(36%)	54(38.8%)	19(13.7%)	10(7.2%)	5(3.6%)	139(100%)
여	43(27.2%)	70(44.3%)	38(24.1%)	6(3.8%)	1(0.6%)	158(100%)

$\chi^2=12.427$, $df=5$, $p<0.05$

	한국인자랑					총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1(.5%)	4(2.0%)	27(13.6%)	74(37.4%)	92(46.5%)	198(100.0%)
여	0(0.0%)	2(.8%)	35(14.3%)	123(50.2%)	85(34.7%)	245(100.0%)

$\chi^2=10.293$, $df=4$, $p<0.05$

	나는 한국인을 좋아한다				총합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6(3.0%)	36(18.1%)	74(37.2%)	83(41.7%)	199(100.0%)
여	2(.8%)	37(15.1%)	125(51.0%)	81(33.1%)	245(100.0%)

$\chi^2=10.455$, $df=3$, $p<0.05$

	한국 정치제도 존중					총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5(2.5%)	8(4.0%)	49(24.7%)	79(39.9%)	57(28.8%)	198(100.0%)
여	2(.8%)	4(1.6%)	80(32.8%)	113(46.3%)	45(18.4%)	244(100.0%)

$\chi^2=12.853$, $df=4$, $p<0.05$

	평소 먹는 음식					총합
	태국음식만	한국음식만	태국음식을 더	한국음식을 더	한식-태국식 반반	
남	6(3.0%)	8(4.0%)	43(21.4%)	58(28.9%)	86(42.8%)	201(100.0%)
여	5(2.0%)	9(3.6%)	32(12.9%)	108(43.5%)	94(37.9%)	248(100.0%)

$\chi^2=12.395$, $df=4$, $p<0.05$

	태국호감					총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2(1.0%)	10(5.1%)	60(30.3%)	98(49.5%)	28(14.1%)	198(100.0%)
여	2(8.8%)	20(8.1%)	108(43.9%)	103(41.9%)	13(5.3%)	246(100.0%)

$\chi^2=17.677$, $df=4$, $p<0.01$

	태국인호감					총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6(3.0%)	14(7.0%)	83(41.5%)	80(40.0%)	17(8.5%)	200(100.0%)
여	5(2.0%)	32(13.0%)	134(54.5%)	66(26.8%)	9(3.7%)	246(100.0%)

$\chi^2=18.376$, $df=4$, $p<0.01$

<연령대에 따른 교차분석>

	평소먹는음식					총합
	태국음식만	한국음식만	태국음식을 더	한국음식을 더	한식-태국 식 반반	
10대	0(0.0%)	1(6.7%)	2(13.3%)	4(26.7%)	8(53.3%)	15(100.0%)
20대	5(6.9%)	3(4.2%)	36(50.0%)	4(5.6%)	24(33.3%)	72(100.0%)
30대	1(1.1%)	3(3.4%)	16(18.0%)	30(33.7%)	39(43.8%)	89(100.0%)
40대	3(1.7%)	7(4.0%)	12(6.9%)	89(51.1%)	63(36.2%)	174(100.0%)
50대	1(1.2%)	3(3.7%)	8(9.8%)	34(41.5%)	36(43.9%)	82(100.0%)
60대이상	1(5.9%)	0(0.0%)	1(5.9%)	5(29.4%)	10(58.8%)	17(100.0%)

$\chi^2=105.571$, $df=20$, $p<0.01$

	친한직장동료					총합
	한국인	태국인	아시아인	서양인	기타	
10대	6(60.0%)	1(10.0%)	2(20.0%)	1(10.0%)	0(0.0%)	10(100.0%)
20대	47(78.3%)	7(11.7%)	5(8.3%)	0(0.0%)	1(1.7%)	60(100.0%)
30대	58(80.6%)	10(13.9%)	2(2.8%)	1(1.4%)	1(1.4%)	72(100.0%)
40대	114(85.1%)	12(9.0%)	4(3.0%)	4(3.0%)	0(0.0%)	134(100.0%)
50대	44(81.5%)	8(14.8%)	1(1.9%)	1(1.9%)	0(0.0%)	54(100.0%)
60대이상	4(44.4%)	3(33.3%)	0(0.0%)	0(0.0%)	2(22.2%)	9(100.0%)

$\chi^2=59.291$, $df=20$, $p<0.01$

	태국호감					총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대	0(0.0%)	0(0.0%)	9(60.0%)	6(40.0%)	0(0.0%)	15(100.0%)
20대	0(0.0%)	1(1.4%)	15(21.4%)	44(62.9%)	10(14.3%)	70(100.0%)
30대	1(1.1%)	5(5.7%)	23(26.1%)	44(50.0%)	15(17.0%)	88(100.0%)
40대	1(6.6%)	15(8.7%)	83(48.3%)	65(37.8%)	8(4.7%)	172(100.0%)
50대	2(2.5%)	8(9.9%)	31(38.3%)	34(42.0%)	6(7.4%)	81(100.0%)
60대이상	0(0.0%)	1(5.6%)	7(38.9%)	8(44.4%)	2(11.1%)	18(100.0%)

$\chi^2=45.776$, $df=20$, $p<0.01$

	태국한국우호					총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대	0(0.0%)	2(14.3%)	8(57.1%)	3(21.4%)	1(7.1%)	14(100.0%)
20대	1(1.4%)	0(0.0%)	13(18.1%)	37(51.4%)	21(29.2%)	72(100.0%)
30대	1(1.1%)	2(2.3%)	29(33.0%)	44(50.0%)	12(13.6%)	88(100.0%)
40대	0(0.0%)	14(8.1%)	63(36.6%)	88(51.2%)	7(4.1%)	172(100.0%)
50대	1(1.2%)	3(3.7%)	35(43.2%)	33(40.7%)	9(11.1%)	81(100.0%)
60대이상	0(0.0%)	0(0.0%)	3(16.7%)	12(66.7%)	3(16.7%)	18(100.0%)

$\chi^2=59.179$, $df=20$, $p<0.01$

	태국우리발전					총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대	0(0.0%)	3(20.0%)	10(66.7%)	2(13.3%)	0(0.0%)	15(100.0%)
20대	0(0.0%)	3(4.2%)	25(34.7%)	35(48.6%)	9(12.5%)	72(100.0%)
30대	1(1.1%)	4(4.6%)	35(40.2%)	41(47.1%)	6(6.9%)	87(100.0%)
40대	0(0.0%)	17(9.9%)	79(45.9%)	70(40.7%)	6(3.5%)	172(100.0%)
50대	0(0.0%)	10(12.7%)	28(35.4%)	36(45.6%)	5(6.3%)	79(100.0%)
60대이상	0(0.0%)	0(0.0%)	4(22.2%)	12(66.7%)	2(11.1%)	18(100.0%)

$\chi^2=34.003$, $df=20$, $p<0.05$

	태국인호감					총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대	1(6.7%)	1(6.7%)	8(53.3%)	5(33.3%)	0(0.0%)	15(100.0%)
20대	2(2.8%)	6(8.3%)	22(30.6%)	36(50.0%)	6(8.3%)	72(100.0%)
30대	1(1.1%)	7(8.0%)	39(44.3%)	32(36.4%)	9(10.2%)	88(100.0%)
40대	3(1.7%)	23(13.3%)	99(57.2%)	41(23.7%)	7(4.0%)	173(100.0%)
50대	4(5.0%)	9(11.3%)	40(50.0%)	24(30.0%)	3(3.8%)	80(100.0%)
60대이상	0(0.0%)	0(0.0%)	9(50.0%)	8(44.4%)	1(5.6%)	18(100.0%)

$\chi^2=35.166$, $df=20$, $p<0.05$

	태국국민성					총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대	1(6.7%)	5(33.3%)	6(40.0%)	3(20.0%)	0(0.0%)	15(100.0%)
20대	3(4.2%)	14(19.4%)	30(41.7%)	21(29.2%)	4(5.6%)	72(100.0%)
30대	5(5.7%)	22(25.0%)	37(42.0%)	19(21.6%)	5(5.7%)	88(100.0%)
40대	12(6.9%)	60(34.7%)	77(44.5%)	22(12.7%)	2(1.2%)	173(100.0%)
50대	3(3.7%)	25(30.9%)	40(49.4%)	10(12.3%)	3(3.7%)	81(100.0%)
60대이상	0(0.0%)	0(0.0%)	12(66.7%)	5(27.8%)	1(5.6%)	18(100.0%)

$\chi^2=31.894$, $df=20$, $p<0.05$

<소득 수준에 따른 교차분석>

	태국어구사능력					총합
	매우유창	유창	보통이다	조금 할 수 있다	전혀 못한다	
하	1(1.6%)	5(7.8%)	12(18.8%)	42(65.6%)	4(6.3%)	64(100.0%)
중하	2(4.5%)	3(6.8%)	10(22.7%)	26(59.1%)	3(6.8%)	44(100.0%)
중	2(1.0%)	21(10.3%)	71(35.0%)	88(43.3%)	21(10.3%)	203(100.0%)
중상	3(3.8%)	16(20.5%)	23(29.5%)	27(34.6%)	9(11.5%)	78(100.0%)
상	2(11.8%)	2(11.8%)	4(23.5%)	6(35.3%)	3(17.6%)	17(100.0%)

$\chi^2=34.465$, $df=16$, $p<0.01$

	태국어 배울 의사					총합
	아주 많다	많다	그저 그렇다	없다	전혀 없다	
하	17(39.5%)	18(41.9%)	6(14.0%)	1(2.3%)	1(2.3%)	43(100.0%)
중하	15(55.6%)	7(25.9%)	3(11.1%)	1(3.7%)	1(3.7%)	27(100.0%)
중	39(29.3%)	59(44.4%)	27(20.3%)	8(6.0%)	0(0.0%)	133(100.0%)
중상	10(18.2%)	29(52.7%)	11(20.0%)	3(5.5%)	1(1.8%)	55(100.0%)
상	4(33.3%)	3(25.0%)	1(8.3%)	1(8.3%)	3(25.0%)	12(100.0%)

$\chi^2=51.832$, $df=20$, $p<0.01$

	전통문화관습					총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하	1(1.6%)	1(1.6%)	15(23.4%)	25(39.1%)	22(34.4%)	64(100.0%)
중하	0(0.0%)	6(13.6%)	6(13.6%)	18(40.9%)	14(31.8%)	44(100.0%)
중	2(1.0%)	3(1.5%)	39(19.2%)	88(43.3%)	71(35.0%)	203(100.0%)
중상	0(0.0%)	1(1.3%)	14(17.9%)	37(47.4%)	26(33.3%)	78(100.0%)
상	1(5.9%)	0(0.0%)	2(11.8%)	4(23.5%)	10(58.8%)	17(100.0%)

$\chi^2=34.359$, $df=16$, $p<0.01$

	평소 먹는 음식					총합
	태국음식만	한국음식만	태국음식을 더	한국음식을 더	한식-태국 식 반반	
하	5(7.8%)	0(0.0%)	23(35.9%)	10(15.6%)	26(40.6%)	64(100.0%)
중하	3(6.8%)	3(6.8%)	9(20.5%)	12(27.3%)	17(38.6%)	44(100.0%)
중	1(1.5%)	8(4.0%)	28(13.9%)	79(39.1%)	86(42.6%)	202(100.0%)
중상	1(1.3%)	1(1.3%)	6(7.7%)	39(50.0%)	31(39.7%)	78(100.0%)
상	0(0.0%)	1(5.9%)	2(11.8%)	10(58.8%)	4(23.5%)	17(100.0%)

$\chi^2=56.238$, $df=16$, $p<0.01$

	친한 직장 동료					총합
	한국인	태국인	아시아인	서양인	기타	
하	42(73.7%)	5(8.8%)	8(14.0%)	0(0.0%)	2(3.5%)	57(100.0%)
중하	23(74.2%)	5(16.1%)	0(0.0%)	3(9.7%)	0(0.0%)	31(100.0%)
중	135(85.4%)	15(9.5%)	5(3.2%)	1(0.6%)	2(1.3%)	158(100.0%)
중상	45(81.8%)	8(14.5%)	1(1.8%)	1(1.8%)	0(0.0%)	55(100.0%)
상	7(70.0%)	3(30.0%)	0(0.0%)	0(0.0%)	0(0.0%)	10(100.0%)

$\chi^2=38.846$, $df=16$, $p<0.05$

	태국인 호감					총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하	2(3.1%)	4(6.3%)	23 (35.9%)	31 (48.4%)	4 (6.3%)	64 (100.0%)
중하	1(2.5%)	4(10.0%)	20 (50.0%)	12 (30.0%)	3 (7.5%)	40 (100.0%)
중	2(1.0%)	16(7.8%)	114 (55.6%)	61 (29.8%)	12 (5.9%)	205 (100.0%)
중상	2(2.7%)	15 (20.0%)	32 (42.7%)	21 (28.0%)	5 (6.7%)	75 (100.0%)
상	1(5.9%)	1 (5.9%)	6 (35.3%)	9 (52.9%)	0 (0.0%)	17 (100.0%)

$\chi^2=27.169$, $df=16$, $p<0.05$